

순창군 지난해 살림 잘했네

4194억원으로 6년 전보다 1012억원 증가 채무는 제로 달성... 지방재정공시 공개

순창군의 살림규모가 황숙주 군수 취임 이후 6년동안 1,012억이 늘고 채무는 제로를 달성했다.

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한 '2017년 지방 지방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해 살림규모는 자체 수입, 이전재원, 지방채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포함된다.

2010년에 3,182억원 이었던 순창군 살림규모는 2016년 기준 1,012억원이 증가한 4,194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세출예산만 볼때도 2010년 2,631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3,239억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 순창군 최초 예산 3천억 시대를 연 이후 3천억 기조를 벗어나 유지 한것.

이처럼 살림규모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황숙주 군수가 발로 뚫은 국가예산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010년 883억이던 국고보조금은 2016년 1,162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제 군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농촌개발분야에서만 1,000여억원, 투자예산도 100억, 서부내륙관광개발사업 316억, 섬진강유리인조성사업 62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국가예산 확보에 성공해 순창군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채무 없는 재정을 만든 점도 눈에 띄는 성과중 하나다. 군은 2004년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제2청사를 건립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빚을 안았다.

2년 후인 2006년에도 동계면 주민중

합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8억7,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또 2008년 풍산면주민종합복지센터와 2011년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각각 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방채만 64억7,0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74억4,600만원까지 빚은 늘었다. 군은 연차적 노력으로 2013년까지 44억5,000만원을 상환하고 2014년 29억을 일시 상환해 채무 없는 재정을 만들어 냈다.

순창군의 지방채 상황은 보조금 일괄제 도입과 경상예산 10% 절감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황숙주 군수는 "취임 이후 건전한 재정운영과 국가예산 확대를 통해 살림살이 규모를 대폭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형사업 예산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농촌공공도서관 건립 본격화

2019년까지 41억원 투입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임실군이 최신시설을 갖춘 임실농촌공공도서관 건립을 본격화하면서 '책 읽는 미래농촌 임실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지난 15일 군에 따르면 임실을 소재지에 내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1억원(국비 16.4군비 12.3교육청 12.3)을 투입해 임실농촌공공도서관을 새롭게 건립한다.

신축될 도서관은 임실군민회관 맞은편 부지 4,712㎡에 연면적 1,284㎡의 지상 2층 규모이며, 1층에는 자료실, 디지털실, 사무실, 2층에는 열람실, 교육실, 시청각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게 된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임실군은 지난 14일 임실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성공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약식에서 군은 부지를 포함한 건축을 시공하고, 교육청은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도서관 신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임실을 소재지에는 교육청이 운영 중인 도서관이 있지만, 건립된 지 5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매우 협소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도서관 건립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크게 반기며,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주부 김모(39)씨는 "아이에게 책을 많이 접하게 해주고 싶은데, 매년 구입하자니 경제적 부담도 커서 도서관

을 자주 이용하지만 시설이 낡고 오래돼서 항상 불만이었다"며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갑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새로 짓게 될 도서관은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 건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은 물론 주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독서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현 도서관이 낡고 비좁아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와서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과제였다"며 "이제 도서관이 새롭게 지어지면 어린이 뿐만 아니라 젊은 주부 등 많은 주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25회 흥부제 키워드 '관객과의 소통'

내달 27일~29일 축제 팡파르... 추진상황 보고회 실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25회 흥부제에 대한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다.

김진석 제2위원장, 강북대 남원시 부시장을 비롯한 행사담당 공무원, 제

전위원 집행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장애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흥부제는 시민이 만드는 축제를 지향하고,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쌍방향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의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25회 흥부제는 '우애·나눔·보은·행운'을 주제로 사랑의 광장과 요원일원에서 공연·경연행사, 문화·체험행사, 연계행사 등 총 4개 분야 21개 종목으로 열린다.

강북대 남원시 부시장은 보고회를 통해 "각종 행사와 연계해 적은 비용으로 대체로운 행사를 추진하고, 시민이 흥부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화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N치즈축제 먹거리 장터운영을 위한 향토음식 품평회를 지난 15일 개최한 가운데 심민 군수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 '고향의 맛' 선사

먹거리장터 운영 위한
향토음식 품평회 진행
특색있는 60여종 첫 선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2017 임실N치즈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색있는 향토 먹거리 60여종이 먹거리장터를 가득 메우며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임실N치즈축제 먹거리 장터운

영을 위한 향토음식 품평회를 갖고 수개월간 발굴·개발한 음식들에 대한 평가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향토음식 품평회는 임실군 생활개선회원과 여성농업경영인 등이 참여해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한 요리실습의 성과물들에 대한 엄정한 맛평가가 이뤄졌다.

선보인 음식들은 읍·면별 특색 있는 향토음식 먹거리들로 주메뉴 13종과 부메뉴 45종으로 총 58종이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흑염소를 이용한 양탕과 추어탕, 육개장 등 친숙한 음식들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슬기탕과 순대국밥과 함께 치즈를 활용해 만든 치즈닭곰탕과 치즈떡꾸이, 치즈부추전 등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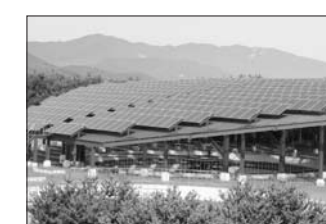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확립

남원시 무분별한 개발 방지

남원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주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9월8일 발령했다.

그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으며, 이를 위해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허가지침에 따라 그동안 농지전반에 걸쳐 제한되었던 태양광에 대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지정리지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으며, 자연 경관 등을 고려하여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



거밀지지역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부지로 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에 대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 이전에 전기발 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침 제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며 "기준에 근거해 투명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옥천고를 대취타대 실버문화페스티벌서 대상

순창군 옥천고를 대취타대가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사이니스타로 선정됐다.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은 지난 14일 서울 유니버시아드센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해 진행됐으며 전국 시도에서 선발된 25개 실버문화 예술단체가 참여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마련된 행사다. 순창 옥천고를대취타대는 나팔, 태평소 등 전통악기의 절도 있는 대취타와 화려한 의상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순창 옥천고를대취타대는 2013년도에 43명의 멤버를 주축으로 결성되어 다양한 공연활동과 순창장류축제 김제지방 선축제 등 연간 6~7회 정도의 국내 굵직한 행사에 초대되어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다문화가족 소통의 장 마련 한마당잔치 350명 참여 성료

순창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문화 가족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마련한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난 16일 순창국민체육센터에서 350여명의 다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날 다문화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웃으로 자리잡았다"며 "오늘을 기회로 가족간의 정을 느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웃과도 소통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된 다문화어울림 릴레이에서는 4개의 팀이 민요, 사물놀이, 시조, 풍기타연주를 선보여 지금까지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를 가져 큰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다문화음식체험존, 포토존, 동심존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다문화어울림 체육대회 및 시상, 판소리와 마술공연도 열려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주여성은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모처럼 실컷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아이돌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